

LG전자 (066570)

주가 재평가 시작될 전망

2분기 에어컨 판매량 급증세 +30% YoY, 가동률 100%

— 2분기 현재 LG전자 가전 (H&A) 사업의 하나인 에어컨솔루션 부문 가동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① 때 이른 무더위에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가전 판매량이 급증하고, ② AI 데이터센터 발열 제어에 필요한 칠러 (Chiller) 및 AI 냉각 시스템 수요 증가로 냉난방공조 (HVAC)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분기 LG전자 스탠드 인공지능 (AI)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대비 +3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6/16, 한국일보). 이처럼 시스템 에어컨, 칠러 등 고 부가 가전 제품의 매출 증가로 2분기 LG전자 가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7,715억원으로 2019년 2분기 (7,175억원) 이후 5년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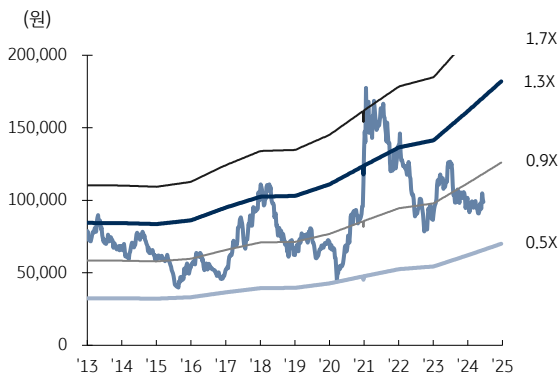
2분기 추정 영업이익 1.2조원 +59% YoY,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 LG전자는 폭염에 따른 에어컨 판매증가와 냉난방공조 (HVAC) 출하 증가 등 가전 사업의 실적 호조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1.2조원으로 예상되어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2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2분기 부문별 영업이익은 가전 (H&A) 7,715억원, TV (HE) 1,254억원, 전장부품 (VS) 1,058억원, BS 및 기타 703억원으로 추정된다.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매출 1조원 예상, 주가 재평가 빠른 속도 전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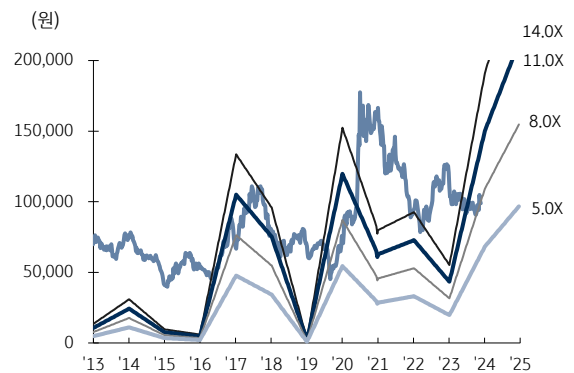
— 2025년 냉난방공조 (HVAC) 매출은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이중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되어 냉난방공조 (HVAC) 매출의 20.8%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냉난방공조 (HVAC) 매출은 2023년 4.2조원, 2025년 5.3조원, 2027년 6.3조원으로 2년마다 매출 1조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북미 빅테크 업체들의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② 에어컨 교체주기 도래로 시스템 에어컨의 신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4년, 2025년 LG전자 영업이익은 냉난방공조 (HVAC) 및 시스템에어컨 등 냉방가전 수요 호조로 각각 4.5조원 (+27% YoY), 5.5조원 (+22% YoY)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최근 1년간 LG전자 주가는 20.7% 하락 (연초 이후 2.9% 하락)해 12개월 PBR 0.74배, PER 5.9배로 과거 10년 역사적 하단 평균 (PBR 0.7배)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때 이른 폭염에 따른 시스템 에어컨 판매량 급증, 북미 빅테크 업체로의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출하 증가, 이에 따른 냉난방공조 (HVAC) 매출 호조 등으로 향후 주가 재평가는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LG이노텍 12M forward P/B 0.74배



자료: LG이노텍, KB증권 추정

그림 2. LG이노텍 12M forward P/E 5.9배



자료: LG이노텍, KB증권 추정



더 많은 리포트 보기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